

고흥산 유자·관자 APEC 세계 정상들 입맛 ‘저격’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고흥군의 청정 식재료가 연이어 조명을 받으며 세계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오찬에서 고흥산 관자가 요리로 제공됐다.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풍미가 뛰어난 이 관자는 신선한 바다향과 은은한 단맛의 감칠맛이 특징이다.

같은 날 만찬에서는 디저트로 고흥 유자 소르베가 제공돼 청정 유자의 상큼하고 풍

경주APEC 정상회의서 요리·디저트·건배주로 등장

농수산물 우수성 세계에 전파…“지역 브랜드 홍보”

부한 향과 깔끔한 맛을 선보였다.

이는 한미 정상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메뉴로 평가받았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는 고흥의 특별한 농산물이 건배주로 등장했다. 국산 쌀과 고흥 유자를 활용해 ‘배

정도기’에서 빛은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가 공식 건배주로 사용돼 세계 정상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막걸리는 청정 해양성 기후 속에서 자란 고흥산 유자 원액을 사용해 유자 특유의 상큼하고 풍부한 향을 최대한 살렸다.

알코올 도수 5도의 저도수 탁주로, 최근 건강과 균형 잡힌 식문화를 중시하는 국제



적 흐름에 부합하며 세계 각국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오찬·

만찬과 APEC 공식 만찬에 고흥산 관자와 유자가 사용된 것은 지역 농수산물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사례다”며 “앞으로도 고흥의 청정 바다와 풍부한 햇살이 만든 우수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유자의 종주 도시 고흥’과 ‘해산물 천국 고흥’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해산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다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자를 비롯한 전복 등 지역 수산물은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이미 높은 평가

를 받고 있다.

특히 고흥산 관자는 세계 미식 시장에서 프리미엄 식재료로서 확고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풍부한 일조량과 부드러운 해풍이 부는 청정 해양성 기후 덕분에 유자 재배의 최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과즙과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프리미엄 유자’로 평가받으며, 유자차, 쥬스, 잼 등 전통적인 가공품을 넘어 음료와 전통주 등 혁신적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보성군은 최근 보성향교 명륜당 광장에서 ‘제25회 보성 기로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성향교, 전통문화 계승·어르신 공경문화 확산

제25회 기로연 성료…전통 예법 의미 되새겨

보성군이 어르신 공경과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향교 명륜당 광장에서 ‘제25회 보성 기로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청년유도회 전남

도 보성지부가 주최하고 보성군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문금주 국회의원,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김재철 도의원, 서형빈 부군수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 어르신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예우 속에

서 경로 효 사상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

‘기로연’은 고려·조선시대에 나이 자긔한 대신을 예우하던 궁중 연회에서 유래한 행사로, 보성군은 매년 기로연을 통해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과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향교 유립 공로패 전달, 장수 어르신 기념품 증정, 풍물·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격식과 품격을 갖춘 전통 예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서형빈 부군수는 “보성의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향후 전통 기로연 행사와 함께 세대가 함께 전통을 잇고 존경 문화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힘을 계속한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기원

광양시 8일 ‘한마음 축제’…“광양 역사·문화 널리 알릴터”

광양시는 오는 8일 광양읍 유당공원에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기원 국가유산 활용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기원 국가유산 활용 한마음 축제는 광양시 고향 사랑기부체 제1호 기금사업인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과 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협소한 광양장도전수교육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용지큰줄다리기보존회, 광양시사라씨예술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장에는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비롯해서 광양의 대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전시·체험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 시민들은 광양장도전수교육관의 ‘장도 문양 책갈피 만들기’, 광양공시전수교



국보 103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육관의 ‘전통 활쏘기 체험’, 용지큰줄다리기보존회의 ‘질공에 계란꾸러미 만들기’, 광양시사라씨예술촌의 ‘쌍사자 석등 키팅 만들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의 ‘쌍사자 석등 뺑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줄다리기 전승교육사 권원태 명인의 전통민

속공연도 펼쳐진다. 시는 이번 한마음축제를 계기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물론 지역 문화유산 관련 단체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1962년 국보 제103호로 지정됐으며, 1931년 일 본강점기에 광양을 떠나 1932년에는 경 북군 자경전으로 옮겨졌다가 해방 이후 경무대, 1960년에는 덕수궁으로 이전된 뒤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을 거쳐 1990년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할로윈데이 가족에 1박2일 글램핑 캠프

구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역민 어울림 마당

구례군가족센터(센터장 박미연)는 최근 구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할로윈 가족에 1박 2일 글램핑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고차 추진됐다.

첫째 날에는 개성 넘치는 할로윈 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또 각 가정의 음식이

야기를 공유하는 ‘우리 집 특별 메뉴’ 소개 시간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이와 함께 보물찾기, 퀴즈 이벤트 등 어린이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져 캠프의 즐거움을 한층 높였다.

박미연 구례군가족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웃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구례군가족센터는 최근 구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할로윈 가족에 1박 2일 글램핑 캠프’를 진행했다.

잔디밭서 가족과 함께 토란 ‘한 입’ 즐겨요

곡성, 8~9일 디톡스테라피센터 앞 잔디광장서 토란페스타

곡성군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곡성군 오곡면에 위치한 디톡스테라피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2025년 곡성토란페스타: 가을 풀풀 피크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곡성토란도란농촌융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곡성의 대표 특산물인 토란을 주제로 한 가족 중심형 가을 축제다.

이번 페스타는 슬로건인 ‘가족과 풀밭에서 즐기는 토란 한 입’처럼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기간 무대에서는 매일 2회, 풍선·마술 공연이 펼쳐져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업단 홍보존에서는 토란가공상품 전시, 토란그림 보물찾기, 럭키뽑기, 퀴즈 이벤트 등이 운영돼 축제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곡성 토란과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먹거리 부스도 풍성하다. 미스터공기와 가랑드에서는 토란 타르트, 쌀 쿠키, 토란 부각, 파이 만주를, 하송에서는 토란 떡볶이 밀키트와 토란잎 밥을 판매한다.

또 푸드파파, 삼기품영농조합법인, 시향가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며, 특히 일부 먹거리 부스는 청년농업인 사업과 지원을 통해 개발된 토란 가공제품을 판매해 지역 청년 농업인의 성장과 제품 홍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토란스프머 종이접기, 토란 향초 만들기, 타투 스티커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토란스프머 포토존에서는 토란캐릭터와 함께 근사한 사진도 남길 수 있다.

또 행사장에는 돗자리와 쉼반 대여, 벌레 기피패치 제공 등 세심한 편의 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며, 보건의료원 지원 의료반이 배치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 환경을 제공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란페스타는 곡성의 특산물 토란을 통해 지역 농업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곡성 토란의 매력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행정안전부 개선방안 반영

여수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aggi지역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4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행 제도상 해당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반영 기간은 2025년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인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여수시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의 침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